



〈법화경〉 사경과 참선정진,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敎)과 마음(禪)을 수행을 통해 닦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⑩ -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불법 외우고 새겨 여래 보리라

“경산은 대구 옆에 위치한 작은 위성 도시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보다는 일본에서 왜곡돼 전해진 기복 신앙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많은 곳이지요. 따라서 그 어느 곳보다 정법수행도량의 역할이 중요하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며, 배우라고 일러준 부처님의 수행법에 따른 정법수행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우기 위해 〈법화경〉 바른수행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경산시 옥산동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에는 주지 대륜 스님의 설명처럼 매주 월요일 오후2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의 장이 열린다. 도량 문을 연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수행 잘 하기로 유명한 도심수행처다. 모든 불자들이 직접 도량을 가꾸며 24시간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법화경 사경·독송→참선→법문 이어져 11월 14일 오후 2시, 〈법화경〉 사경노

트를 쟁쟁하고 불자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30여 불자들이 2층 법당을 가득 메웠다. 법당 앞 화이트보드에는 2시간가량 진행될 수행계획이 시간대별로 적힌 글이 수행자로서 몸과 마음 가집을 살필 것을 중용한다.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최태숙 회장의 집전으로 예불의식이 끝나자 불자들은 1시간 동안 〈법화경〉 사경에 몰입했다. 목탁과 죽비가 수행의 집합이 될 뿐, 외부의 어떤 잡음도 침범하지 못하는 고요 속에 잠겼다. 〈법화경〉의 뜻을 머리로 알기보다 온몸과 마음으로 체득코자 한 희한 자에 정성을 쏟는 불자들은 그대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갔다.

3시 10분, 세 번의 죽비소리가 다시 한번 마음가집을 살피게 만들고 불자들은 일제히 〈법화경〉 제17 ‘분별공덕품’을 한 목소리로 독송했다. 법당에는 〈법화경〉 독송소리만이 가득하고, 보여 지는 상(相)들을 하나로 집어삼켰다. 10여분간의 독송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벽을 향해 기부좌를 틀고 앉은 불자들은 다시 참

선삼매에 몰입했다. 어느 틈에 들어온 주지 대륜스님이 바른 수행과 정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보냈다. 30분쯤 흘렀을까? 스님의 죽비 삼성이 참선삼매를 깨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갈게 전하는 법문이 이어졌다.

“법당(法堂)은 진리(眞)가 있는 곳이지, 부처님만 계신 불당(佛堂)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생심을 들어내고 원래 불성자리를 끄집어내야지, 내 자식 내 남편에만 집착하면 불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로 깎아지른 마음(心)에 여백(餘白) 생기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내가 어떻게 〈법화경〉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붓도 못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재밌고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에 여백이 이만큼 생긴 것 같아 행복합니다.”

류정숙(66·경산 옥산 1지구)씨는 이제 〈법화경〉 사경을 매일 500자, 1독 1배를 500배 한다. 일곱 권으로 된 〈법화경〉 사경노트를 세 번 썼다는 류씨는 정성껏 사경한 〈법화경〉 한 짚을 천구어머님이 들어가셨을 때 관속에 넣어드렸

다며 뿌듯해했다. 감상선 치료약을 먹으면 늘 병과 싸웠다는 김정희(48·경산시 정평동)씨는 어느덧 약을 먹지 않아도 피곤함을 못 느끼게 됐으며 자랑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집, 부모, 자식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앉아서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고 말했다.

24시간 마트를 운영하는 천재국(39·경산 옥산동)씨는 절에 나온 지 9개월 남짓된 병아리 불자다. 늘 불안해 술을 마시고 수시로 화를 냈다는 천씨. 절을 하고 사경을 하다보니 어느덧 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고 한다.

정반화(54·대구 서지동)씨는 처음 사경을 시작할 때 끔찍했다고 토로했다. 삼천 배 오천 배 절은 해도, 도저히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전 한 자를 쓰는 것이 어려웠다는 정씨. 이제는 짐뚱뚱도 잊을 만큼 수행삼매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낀다며 그저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미소 지었다.

“법화경” 바른수행모임을 이끄는 최태숙(45·대구 매호동)회장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어느 날, 〈법화경〉 전법만한 도움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늘 〈법화경〉 전법을 발원하게 됐다”고 한다. 〈법화경〉 수행은 매일 한 자를 쓰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꾸준히 일념으로 수행을 이어가다보면 수행의 묘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권했다. (053)811-0337

글·사친/경산=배지선 기자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김태권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문의 상담 환경
서울시 종로구 명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대륜 스님 일문일답

▲〈법화경〉을 강조하는 까닭은?
-〈법화경〉은 부처님이 49년여 동안 설하신 경전 중에서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설하신 경전이다. 가장 완숙된 경전에서 최정점의 진리를 설한 것이다.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이라고 하는데, 연꽃이 사바세계에 뿌리를 내리려도 불성은 물 들지 않듯 결국 누구든 언젠가는 모두 성불한다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경에 많이 활용되었던 〈법

한 글자 한 글자 통해 부처님과 하나되는 과정

화경〉은 수지 독송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기에 알맞은 경전이다.

▲〈법화경〉 사경의 마음가집은?
-사경은 〈법화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체득하는 과정이다. 시공을 초월한다면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게 돼 열하는 자리다. 뜻을 이해한다면 더 좋

지만 시작을 하는 취지가 중요하다.

▲수시로 오는 경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언뜻 수행의 처음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도 느끼고 기쁨도 온다. 그러나 곧 나태함 등의 경계가 찾아온다. 깊이 누적돼 있는 마음의 때를 제거해야 하는데 어렵다. 하지만 초발심으로 계속한다면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게 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4> 첩자와 자객

절제 때는 보름마다 포살을 한다. 비구 계(사미계)와 보살계 포살을 번갈아가며 한다. 보살계는 6부대중이 모두 함께 모여서 포살을 해도 무방하지만 비구계 포살은 사부대중을 엄격히 나누어서 실시한다. 또 계목이 대외비(?)인 까닭에 포살을 하는 법당(혹은 큰방) 앞에는 죽비를 비껴 매고서 포살을 한다. 사실 비구(나)울장은 비구(나) 외에는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요즘은 울문까지 개방된 시대인지라 이 조항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그 보인의식은 상징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부처님을 개금하거나 가사를 만들 때 근처구역에는 반드시 줄을 치고 ‘금란방(禁亂房)’이라고 써 붙여놓는 것도 부정할 사람과 나쁜 기운의 개입을 막으려는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훗날 대상을 물건뿐만 아니라 정신자신까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도록 해라. 혜능의 처소에 가서 그의 설법을 잘 듣기만 하라. 내가 그대를 보내서 왔다고 말하지 마라. 다만 그의 설법을 듣고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해서 돌아와 내게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 속히 돌아오도록 하라. 그리해 나의 이러한 의도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라.”

첩자는 우선 재빨라야 한다. 그래서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게다가 신속성이 생명이다. 피리가 길면 그 흔적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는 말도 잊지 않고 있다. 또 첩자로 인해 파견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도록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첩자 지성은 ‘돈오’의 가르침을 듣다가 거기에 매료된 나머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귀화해 버린다. 그때 혜능 선사는 ‘첩자’라는 말로써 지성을 평가한다.

독창적인 ‘돈오’ 사상으로 선종사 바꾼 혜능 첩자와 자객마저 감동시켜 제자로 만들어

지 넓혀졌다. 불법(佛法)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신속 선사의 처소에서 왔다면 분명히 첩자(細作)인데 틀림 없으리라.”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첩자가 ‘세작(細作)’으로 되어 있다. 엄밀하고 비밀스럽게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일을 처리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셈이다.

지성이 세작(정보원)이라면 지통(至通)은 자객에 가깝다. 〈전등록〉 5권에 그의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둘 다 나중에는 혜능의 십대제자 명단에 포함된다. 그는 북종선 승인 보적선사의 부탁을 받고서 칼을 품고 혜능 선사의 방으로 침입한다. 선사를 해치려고 칼을 세 번이나 내리쳤지만 선사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이에 감동한 나머지 마음을 돌이켜 출가해 혜능의 제자가 된다.

선지식의 범력은 정보원과 테러리스트까지도 감동시켜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제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춧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을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증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몇생을 거듭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종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동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 동참 목록

- 아미타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수보살 : 일천만원
- 보현보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획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화순 안희숙 최미자 안치영 고영인 유성용 이동우 장현순 백병국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